

art

IN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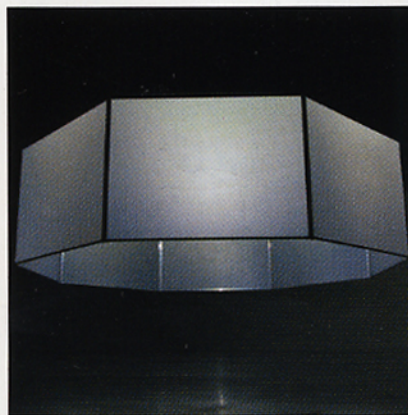
소씨, 우리는 행복해요?!"

경자: 내 생애 아름다운 82페이지

나 | 안젤라 블로흐의 픽셀 오디세이

가 김성원, 유진상, 반이정이 논하는
나 없는 전진, 박이소 유작전을 둘러싼 논란,
각, 작가들의 언론 플레이, 그리고 몇 가지 더

2006 4



김신일:

베다니엔 스튜디오 귀국展

2. 28 ~ 3. 12

아르코미술관

글 | 최태만 · 미술비평

라파엘로가 그린 <예수의 승천>은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는 극적인 장면을 주제로 한 것이다. 화가는 이 순간을 재현하기 위해 목격자들을 다양한 표정과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이들 중 여덟 명의 인물은 김신일에 의해 재현된다. 베를린 베다니엔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한 그는 입주 작가 중 여덟 명에게 라파엘로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포즈를 취하도록 부탁한 후 그것을 여러 각도로 촬영했다. '입인 드로잉'을 위한 일차자료인 이 사진들에서 작가는 사진의 윤곽선만 채택하고 표정, 색채는 폐기했다. 이렇게 제작된 드로잉은 컴퓨터 작업을 거쳐 동영상으로 완성된다. 빌 비올라의 <만남>이 폰토르모의 회화를 동영상으로 재현하면서 매너리즘 회화 특유의 주지적이면서 정신적인 느낌을 고양하기 위해 색채를 예민하게 다룬 것이라면 김신일은 동영상에서 색채를 제거함으로써 작품을 '움직이는 드로잉'으로 만들었다. 여덟 개의 스크린을 연결한 팔각형 구조물을 전시장 천장에 매달아 그 속에서 회미하게 움직이는 인물의 영상을 올려보도록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전개(典據)인 라파엘로의 회화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얇은 종이에 철필 같은 것으로 드로잉한 인물의 윤곽만 모아 움직임 부여하였으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그야말로 투명한 스크린뿐이다. 그러나 주의를 집중하면 스크린 속의 인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형상이 있으나 그것을 비워낸, 그래서 '비디오 미니멀리즘'이라고 불려도 될 그의 작품은 실재가 빠져나간 껍데기이자 그것을 가두는 그물과 같은 것이다. 이 여덟 명의 인물을 각각이 보여주는 격렬한 몸짓이 지닌 의미를 독해하기 위해 애쓰다가 혹시 이들이 육체 에너지의 소진을 위해 가망 없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이런 '눈속임'을 이용해 우리의 의식을 교란시킨 바 있다.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영화를 복

제하고 있는 남자의 윤곽만 재현하고 배경이나 세부를 제거해 버려 우리는 허공에서 뭇만 놀리고 있는 사람을 목격해야만 했으며,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있는 사람의 손의 윤곽이 실재인지 환영인지 어리둥절해야만 했다. 이런 어리둥절함은 라파엘로의 작품을 변용한 이 작품에서 되살아난다. 또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달라이 라마의 영어 법문을 거꾸로 재생한 소리인데 확실한 것은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비디오 미니멀리즘이자 변용된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품은 실재와 허상 사이에 설치해 놓은 울가미이자 함정이다. 스크린의 창백함이 동영상에 의해 강조되는 이 휴지(休止)의 공간 속을 부유하고 있는 인물들은 그런 점에서 라파엘로의 회화 속 인물들과 상관없을 수도 있다. 이들이 예수의 승천에 당혹해 하는 것 이상으로 연극적인 제스처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앞에서 우리의 당혹감은 고조된다. 그러나 전거는 단지 작품의 모티브이자, 흥미를 더하는 에피소드일 뿐이다. 그것이 강조될수록 작가가 걸어놓은 울가미는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이 작품이 명작을 재현했다는 사실에만 집착하여 그 덫을 방지할 수는 없다. 작가는 묻고 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본 것은 과연 실재인가, 당신이 실재라고 믿는 그것은 과연 진실인가? 이 물음들은 수사(修辭)가 제거된 것이기 때문에 건조하지만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너무 현란하여 영상이 현실을 추월해버린 비디오 과잉의 시대에 그의 작품은 '진정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김신일 <The Transubstantiation>
8채널 DVD, 영상설치, 2005